

안전띠 미착용 단속 23일동안 무려 8371건 적발

광주 운전자 60명 중 1명 꼴 걸렸다

하루평균 364명...U대회 앞두고 부끄러운 교통의식

한 달 동안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 1만 명이 적발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제대회를 앞둔 광주의 부끄러운 교통문화의 '민낯'을 엿볼 수 있는 통계라는 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3일간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심에서 근무중인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8371명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하루 평균 364명의 운전자가 법칙급 스티커를 끊은 점을 고려하면

오는 28일, 1만명이 넘는 운전자가 적발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한 달 내 안전띠 미착용 적발자 1만명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5월말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일반 승용·승합차는 총 50만8549대. 승용·승합차 운전자 61명 중 1명꼴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걸렸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3만원짜리 법칙급 스티커로 계산하면 팍팍한 삶에도 23일간 2억 5113만

원을, 하루 평균 1092만원을 낸 것이다.

광주경찰의 지난해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적발건수는 7250건. 한 해 전체 적발건수를 훌쩍 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건수(481건)보다는 무려 17.4배나 높다.

경찰이 국제대회를 앞두고 교통문화 준수 등 기초질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예고했음에도 별반 나이지 않았다. 안전띠를 맨 운전자를 상대로 단속을 하진 않았을테니, 경찰 단속을 탓하기에도 민망한 수치라는 지적이 많다.

국도교통부가 지난해 내놓은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광주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였다. 경찰청 자체 안전띠 착용률 조사 결과도 15위에 머물렀다. 이유 있는 적발 건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박정관 교수는 "광주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안전띠 착용조차 습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국제대회를 앞두고 시민들의 교통문화의식을 예기하는 것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습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대견한 중학생들 김치 담그고 복지시설 전달

광주시 남구 송의중학교 오리동아리 '쿠김마마' 학생들이 24일 교내 실습실에서 김치명인인 김옥심 명인과 김치를 담그고 있다. 학생들은 이날 담근 김치 30여 포기를 남구지역 노인복지시설인 '성 요셉의 집'에 전달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불법개조 화물차 하청업체 배정 목인한 이통사들

근로자 안전사고 무방비 노출 광주경찰, 직원 등 132명 적발

불법 개조된 고소(高所) 작업차가 전기 공사 현장에 투입,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당국의 지도 단속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LG U+ 등 국내 대표적 통신업체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불법 개조 행위를 묵인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외시켰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

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4일 인터넷 선로 보수용 작업차량을 불법 구조변경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KT 직원 고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LG U+ 직원들에게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구조변경된 고소작업차 473대를 대여해 전국 사업소에 배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와 LG U+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구조변경된 차량 수백대에 나눠타고 고소 작업에 나서면서 안전 사고에 노출됐다. 이는 경찰 설명이다.

불법개조된 화물차의 경우 정식 특수차와 달리 작업자들이 감전되는 것을 막는 절연장치가 없고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는 전도방지대(아웃트리거) 등을 갖추지 않아 추락·감전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현행법은 버킷(크레인에 설치된 작업자

탑승공간)의 경우 일반 화물차량에는 탑재할 수 없고 특수차량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경찰은 KT와 LG U+가 이같은 방식으로 선로 보수작업용 화물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사용함으로써 각각 22억원과 25억원의 부당수익(비용절감)을 거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KT와 LG U+의 작업 요구에 따라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변경한 무등록 차량정비업자 김모(50)씨 등 8명과 허위로 자동차 정비 작업완료 증명서를 발급한 검사소 직원 나모(50)씨 등 7명을 포함 총 13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허위 신고 처벌 대신 치료 '훈훈한 경찰'

광주 동부경찰 재할 알선...20대 여성은 감사 문자 화답

경찰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대신, 치료를 통해 재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달 6일 여성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신고를 접수받았다. 전날 밤 모르는 남성에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 내용으로, 피해자 A씨(여·23)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강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즉시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속옷 등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현장인 원룸촌 인근 CCTV를 모두 뒤져 범행 시간대 증거 영상 확보에 들어갔다.

유전자 감식 결과, 혐의를 들만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고 CCTV에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각을 중심으로 용의 선상에 올려놓 증거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담당 경찰은 15일 가량 수사한 뒤 A씨를 불러 "수사 과정에서 미처 말 못한 게 없느냐"고 에둘러 물었다. A씨

는 한참 머뭇거리다 울음을 터뜨렸고 "거짓 신고를 했다"며 털어냈다. 경찰은 허위 신고 경위를 파악하면서 A씨가 3년 전 성폭행 피해 뒤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신적인 치료가 시급한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스마일센터와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 A씨에 대한 진료를 의뢰, 정기적인 통원·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대신, 치료를 통해 재할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불입건조치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신철웅(43) 경사는 지난 6일 "3년 전 사건 이후로 가족과 대화가 끊긴 지 오래였는데 '경찰 아저씨'가 치료를 받도록 도와준 덕에 오랜만에 엄마 생일날 가족과 함께 보냈다"면서 "경찰을 꾸꾸는 오빠가 자랑스러워할 통새이 되기 위해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겠다"는 감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법원 "임금체불 처벌 면하려 합의한 척 했다"

괘씸한 염전업자 보석 취하 법정구속

법원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의견상 피해자와 합의한 모양새만 갖다며 70대 염전업자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종재)는 24일 염전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중사기) 등으로 기소된 최모(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게 7000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했다는 통장거래내역서와 합의서 등을 들어 지난 3월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지러천박'(智識淺薄·지적능력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처벌을 면하고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없이 합의의 외양만 창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5000만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사실상 관리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역도 실제 지급됐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참작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토바이 운전자 부상 격정에 시민이 신고...알고보니 만취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부상 중 넘어지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24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양모(57)씨는 지난 23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M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졌다는 것.

○...때마침 현장을 지나다 양씨의 사고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양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운전면허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요양(병)원,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연수원, 최적지

투자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 1분거리
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별장으로 운영 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정도 상승 가능
군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요양(병)원, 연수원, 별장, 수련원, 종교시설,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야외 결혼식장 등등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감정가 28억 / 시세 30억 정도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능)

공동투자하여 운영 하실 분 환영!

- 주인직매 H. 010-3605-5000